

내가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을 원하는 이유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상임위원장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상임위원장 박은영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기본소득당의 광주광역시비례 시의원으로서 출마했습니다. 그 결과는 마음이 아파서 공유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되어 선거운동을 할 때, 공약만큼 많이 묻는 질문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해 보면 제가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꿈꾸었고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자유로운 삶이 기다릴 것이라 믿고 살았던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그 꿈은 20대에 몇 번의 이직을 통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제가 직장인으로 살며 직급에 따른 위계와 상명하복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좀 우울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했고 뒤늦게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며 이 세상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을 바꿔야 하고, 정치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2008년 창당한 진보신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정책이 마음에 들어 입당해 당원 모임에 나가며 27세에 정당 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진보정당의 분당과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이 정당을 떠나는데 저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지역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니다. 정당 활동가이자 시민단체 활동가 박은영이 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정당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중후반에 광주로 이주한 저에게 지금까지도 광주에서의 가장 오랜 인연은 당원들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입니다.

대안학교 교사가 되면서부터 광주지역에서 만든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살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 노동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광주인권증진시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 회원으로 LH임대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활동을 하며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고 지금은 광주인권지기 활짝의 상임활동가로 인권교육과 인권연대활동을 하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기였던 때는 대안학교에서의 경험입니다. 2010년 당원들이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대안학교 일을 권했고 많은 당원과 지인들이 응원해주었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과 8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가 기본소득당 창당을 선택하게 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학벌주의라는 시대의 한계와 차별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기본소득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화답처럼 대안학교에서 10년 전 만나 알고 지내던 문현철님이 광주기본소득당 창당에 함께 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가 되어 선거를 함께 뛰었습니다. 후보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기에 선거운동에도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성의 질서에 맞서는 존재들과 함께 하는 일상은 예측불허의 모험을 떠나는 일과 같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으로 평균나이 27세의 젊은 정당 창당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 시장 후보로 나선 선거까지 매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십여 년을 시민단체 활동가로 살아오며 경험한 것은 어쩌면 기본소득을 받으며 사는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활동은 제가 하는 활동과 제 자신의 삶에 대한 지원이자 응원이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후원해주는 분들을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덕에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점 많은 제가 기본소득으로 변화할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이 껌냥에 넘치도록 큰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사회적 지지와 연대입니다. 기본소득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용기를 주고, 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지지하고 지지받으며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정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 불평등, 소득 불평등,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세, 소득세, 탄소세를 신설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마중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선별도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증명하는 정책이 되어 정착시키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노령연금 등 시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보

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또한 개별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가부장제 하에서 만들어진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고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제가 사는 광주에서 추석 명절을 보름 앞두고 보육원을 나온 청년 두 명의 연이은 자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외로움 속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보다 자살을 생각했을 그들의 마음이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죽음 이후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 중에서 받은 자살을 생각한다는 통계를 접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외롭게 버티며 살고 있을, 죽을 만큼 열심히 살거나 이젠 지쳐서 죽음을 떠 올릴 그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으나 폭염과 폭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거나 실제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존재했으나 사회적 존재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사회적 존재로 등장하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각자도생하는 사회, 능력주의가 공정으로 왜곡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쌓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적 자산과 공유부를 사회구성원과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기본소득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시민적 권리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분배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시민들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해결할 주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의 당원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으로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어딘가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며 묵묵히 기본소득 운동을 하며 살아가는 기본소득 연구자,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